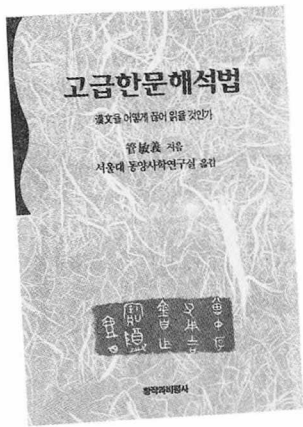


# 예문 풍부한 한문뽀어읽기 방법론서설

창작과비평가 펴냄 「고급한문해석법」



한때 「不可不可」란 연극은 그 제목의 중의 법 덕분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뽀어읽기에 따라 정반대의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한자어가 그럴진대 한문의 경우는 의심할 것이다. 중국의 문호 노신은 「古文의 표점은 종종 유명한 학자조차 망신시키기도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고급한문해석법」은 ‘한문 뽀어읽기 방법론 서설’이다. 구두와 표점의 차이를 설명하고, 마침표와 쉼표, 모점·세미콜론·콜론, 물음표·느낌표, 말늘임표·말줄임표 등의 용법에 대해 잘못된 예를 바로잡으면서 올바른 표점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중국의 관민외씨가 지은 「옛책의 표점을 어떻게 하느냐」를 서울대 동양사학연구소실 팀이 번역한 이 책은 중국사의 권위자인 민두기교수가 석·박사과정 강의에서 교재삼아 강의하면서 원저자의 잘못된 설명과 예문의 잘못된 인용까지도 짚어내

원저보다 더 좋은 번역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논어」 「맹자」 「좌전」 「춘추」 「한비자」 「사기」 「노자」 「장자」 「삼국지」 등 중국고전에서 많은 예문을 인용하면서 뽀어읽기의 잘못된 예와 바른 예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예문을 통하여 한문 뽀어읽기의 법을 깨우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이 책의 독자대상은 「한문 문장 읽기의 초보는 익혔으나 좀더 깊이 나가는 데 힘겨워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다.

한문은 그 뽀어읽기에 따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는 문장을 양산한다. 이 책의 한 예문에 「논어」 향당편의 「廐焚子退朝曰傷人乎不問馬」란 구절이 있다. 통상 이렇게 해석된다. 廐焚.子退朝.曰：“傷人乎？”不問馬(마구간에 불이 났었는데, 선생님께서 퇴조해서, “사람이 다쳤느냐?”하고 말씀하시고, 말은 물어보지 않으셨다).

그러나 육덕명이란 사람이 「경전석문」에서 ‘不’ 자에서 뽀어읽는다. ‘傷人乎不.問馬’(사람이 다치지 않았는지 물으시고 (그 다음에) 말에 대해 물어보셨다). 그런가하면 이제용은 「자하집」에서 ‘傷人乎.不.問馬’(사람이 다쳤는가라고 말씀하셨다. 아니다(라고 하니) 말에 대해 물어보셨다)라고 뽀어읽는다.

이 책의 제1장은 ‘옛 중국책들이 구두를 하지 않은 원인’과 ‘구두점 찍는 법의 역사’ 등 흥미진진한 문제를 다룬다. 상고시대의 한문은 굳이 구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간명했지만, ‘옛날 것을 숭상하고 현재의 것을 낮추는’ 유교사상이 정착되면서 관례화됐다는 분석이다.

창작과비평가/A5신/370면/10,000원

# 박경리문학에 바쳐진 의미있는 기념비들

「수정의 메아리」 「恨과 삶」 「자유」



한국문학사의 큰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박경리씨의 필생의 대하소설 「土地」의 완간을 기념하는 책 3종이 출간됐다. 소설가 박씨의 시집 「자유」, 박완서씨 외 17인의 문사들이 박씨와 그의 소설을 지켜본 소감을 적은 수필집 「수정의 메아리」, 그리고 비평가들의 「土地」론을 묶은 비평선집 「恨과 삶」이 그것.

시집 「자유」에는 26년간 한 작품의 완성을 위해 혼신을 다한 삶의 그 치열함이 짙게 배여 있다. 삶 속에 저절로 스며든 평탄한 언어들에 기교없이 방생하고 있지만, 도저한 작가혼을 감당하는 그 언어들에 비늘처럼 번득인다. 시집 모두에 서시처럼 자려한 작품 「사마천」은 작가의 자화상에 다름아니다. “그대는 사랑의 기억도 없을 것이다/긴 낮 긴 밤을/멀미같이 시간을 앓았을 것이다/천형 때문에 홀로 앓아/글을 썼던 사람.”

이 시집은 광대한 세계의 「土地」에 비한다

면, 작가의 여기의 소산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거인의 면모를 풍기는 영혼의 혼잣말은 일상인에게 큰 울림을 준다. 현란한 기교는 중후한 일갈 앞에서는 한낱 추풍낙엽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시집이다. “수식의 가소로움이여”. 작가의 고난스런 삶의 단면을 직설적으로 내보이는 구절은 없지만, 미세한 언어의 무늬를 따라가며 작가와의 “의미심장한 교감”을 나누는 재미가 자못 쏠쏠하다.

「수정의 메아리」는 당대의 명문장들이 박경리씨의 삶과 문학을 진술한 글모음이다. 소개(?) 자체의 무게가 글의 무게중심을 잡아줄 뿐더러, 작가와 편집자를 한껏 의식한 필자들의 날선 의식은 편편마다 진국의 문장을 탄생시키고 있다. 한 페이지에 두 개의 마침표가 찍히는 소설가 박상륜씨의 그 여전한 문장이나, 박경리씨가 「귀신에 썩인」 작가임을 사회과학자의 시각으로 해석한 김형국 교수의 글이나 모두 문학의 위엄과 작가혼의 귀기를 되새기기에 손색이 없다. 1975년 2월 15일, 사위 김지하씨의 출감을 배웅 나온 작가 박씨의 모습을 스케치한 문학평론가 김훈씨의 글은, 감각의 깊이는 손가락이 아니라 가슴에서 솟구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전범이라 할 만하다.

「土地」작품론 선집인 「恨과 삶」은, 편자인 정현기 교수(연대 국문과)에 따르면, “일반독자에게는 탐돌이의 중심탑이며, 전문독자에게는 여러 측면에서 바라본 해석의 기본교재”이다. 1976년에 송재영씨가 쓴 논문으로부터 올해 5월 초 하용백씨가 쓴 글까지 11편의 평문이 수록됐다.

술/A5신/각 132, 254, 340면/6000원 내외

## 가족을 찾습니다

“  
영업/경력자/이력서  
경리/남·여불문/PC가능자/이력서  
편집/신규·경력자/이력서·자기소개서  
”

사민사

서울 중랑구 상봉동 137-1 남성 B/D 315호  
TEL : 496-9381 FAX : 496-9382

왜 서반구에서는 오래동안 바퀴가 사용되지 않았을까요



세계 역사를 바꾼  
ICO대 발명

빌 엔 지음/김희봉 옮김/값 5,500원

조선시대 왕들이 사용했던 대화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100가지 에우소 이야기  
확장실이 웃는다

프래닝 오웬 역음/편집부 옮김/값 5,000원

마르코 폴로와 콜럼부스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 까요



세계 역사를 바꾼  
ICO대 사건

빌 엔 지음/이수하 옮김/값 5,500원

## “미국은 왜 전쟁을 부추기는가”

신중 마피아! 지구상 최악의 문제해부!!

「올해의 베스트북」 퍼블리셔스위클리 선정



나이트매너지

존 르 까레 지음/김성식 옮김/원2면/각권 5,500원

서머셋 모옴상 수상자 존 르 까레가 숨가쁘게 돌아가는 스릴러!

“...정부내 세력전쟁 그리고 영혼과의 내면전쟁. 작가가 기술하는 이런 전쟁들이 배틀린 장벽의 붕괴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추리소설 창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뉴욕타임즈 93.6.27/타임 93.6.26/조선 94.2.5/중앙 94.2.12/한국 94.2.8/동아 94.2.3/한겨레 94.2.9

# 카오스이론으로 재조명한 문명사의 줄기

김상일 지음 「카오스와 문명」



카오스 이론이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하다 못해 가전제품에까지 카오스 이론이 끼어들고 있다. 정확한 계산과 합리성만을 추구하는 기존의 과학이론보다는 모호하고 혼돈스러워 보이는 카오스 이론이 더 편리하고 인간다움을 만들어 준다는 생각이 '나비효과'처럼 번지고 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혁명적 사건이 카오스라는 시각에서 볼 때 인류문명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저자 김상일 교수(한신대 철학과)는 지적한다. 즉 인류문명사에서도 인간들이 합리성과 정확성만을 추구해 온 결과, 자연은 파괴되고, 몸과 마음은 균열되고, 남성과 여성간의 대립만 심화되어 구제불능 상태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저자는 보고 있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현상의 원인을 기원전 2000년경에 카오스와 그녀의 가족들(땅의 신 가이아, 사랑의 신 에로스)이 살해당한 사건에서

유래하지 않았나 하는 진단을 한다.

저자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문명은 비카오스화 부분에 해당된다. 비카오스화를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눌 경우, 결국 전체문명사도 세부분(알카오스, 비카오스화, 얼카오스)으로 나누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본다. 책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토대로 인류의 기원, 인간의식의 발달단계, 역사의 진행, 문화의 다양성, 인류의 지향목표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실과 현상들을 여러 각도에서 심도있게 풀어낸다. 그리고 인류학, 종교학, 민속학, 심리학, 철학 등을 학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카오스 여신에서 전봉준의 동학혁명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시간과 공간 속을 종횡으로 움직이면서 동서양 문명사의 거대한 줄기와 비전을 새롭고 절묘하게 짜나간다.

지금 인류문명사를 저자는 비카오스화의 말기에서 있다고 주장한다. 그 증거는 온갖 폭력, 환경파괴, 마약남용, 성범죄 등의 최악의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비카오스화의 극복방안으로 저자는 현재적 자아를 초월하는 얼카오스를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이 책에서는 얼카오스의 구체적인 지향점이 바로 최제우나 강증산 등의 선각자뿐만 아니라 의상대사 등의 얼카오스적 개념에 있음을 피력한다. 특히 문명의 영김을 푸는 지혜를 저자는 절대평등과 자유정신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는 의사대상의 화엄일승법계도에서 풀어내고 있다. 동학혁명에서 카오스의 분신을 발견하는 저자의 주장이 흥미를 끈다. 동아출판사/A5신/496면/8000원

# 세계 각국의 음란출판물 규제 법령

문화체육부 펴냄 「외국의 출판법제」



각국의 출판관련 법령을 소개한 책이다. 부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특히 '음란출판물 규제를 중심으로' 프랑스·미국·일본·영국·독일·중국·호주·말레이시아 등 12개국의 관련 법령을 소개하고 있어 우리의 음란물규제 기준 및 출판정책과 좋은 비교가 될 만하다.

우리의 헌법은 기본적 인권 가운데 하나로 '언론과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를 보장하고 있으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문구 또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분명 언론·출판의 검열을 금지하는 법적 보장이지만 실제로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광고물 등 관리법' '영화법' '공연법' '방송법' 및 다양한 관련 형사법규들과 부딪치면서 음란출판물뿐 아니라 일반 출판물에 대해서조차도 사전·사후의 규제는 알게 모르

게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근거는 "아무리 자유가 보장되는 언론·출판이라 해도 타인의 권리나 명예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3자의 법익,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른 규제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대응해왔다.

이처럼 우리·외국 할것없이 모든 국가들은 출판물 특히 음란출판물에 관해서는 규제를 위한 법령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의 출판·배포 행위를 범죄로 구성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 책을 들여다 보면 그에 관한 규제에 있어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음란출판물의 출판·배포 이전에 행정공무원에 의한 사전검열 여부, 음란영화필름에 관한 검열 또는 분류 여부, 그리고 음란출판물의 수입에 관한 세관절차에서의 규제 여부 등이 그것.

예를 들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의 사전적 규제로서 일반적인 검열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보면서도 음란한 영화필름에 대한 사전적 규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독일과 호주 및 홍콩은 각각 배포 '이전'의 단계에서 출판물을 음란성 여부 및 음란성 정도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하여 배포의 조건 등에 있어 차등취급함으로써 제한된 형태의 사전적 규제를 실시하고 있어 나라간에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체육부·한국출판금고/A5신/334면/비매품

## 창고관리 및 배본대행

### 출판유통의 신세대 기업!!!

지금까지 여러 출판사와 서점관계자분들의 도움에 힘입어 출판사의 창고관리, 배본대행 및 영업대행 업무를 해오던 저희 북스마인드(BOOK MIND)가 고양시 내유동에 창고를 확장 이전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와 저렴한 비용으로 창고관리 및 배본대행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희 북스 마인드는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출판유통 분야에 밀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 북스 마인드(BOOKS MIND)는 기존의 다른 출판유통업체 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이제 막 출판을 시작한 신규 출판사나 소규모 출판사에게 출판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출판물에 대한 화재나 손실, 파본 등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는 현대식 창고건물과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출판업을 새롭게 시작해 보십시오.

출판유통의 신세대 기업 북스 마인드 전화 : 723-7528~9, 팩스 : 723-7530